지방행정연구 제34권 제1호(통권 120호) 2020. 03. 297~320

도농교류의 지불가치 추정 연구

: 서울시-농협의 '도시가족 주말농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Estimating the Payment Value of Urban and Rural Exchange

: The Case of City Family Weekend Famer Program

김 강 현**

Kim, Kang-Hyun

목 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현황
Ⅳ. 실증분석
Ⅴ. 결론

'도시가족 주말농부' 프로그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도농교류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와 농협의 협력적 정책인 도시가족 주말농부 프로그램에 참여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실태와 지불가치를 분석하여, 도농교류의 활성화와 도시와 농촌 간의 상생협력적 관계 구축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동 프로그램은 서울시와 농협이 공동운영하여 참가비 보조가 이루어지는 정책사업의 성격을 띠며, 본 연구의 주요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간 교류협력이 기존의 관습적이고 형식적인 운영이 아닌 시민편익의 관점에서 가치가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도농교류를 추진함에 있어 도시민과 지역민의 상호 효용증대에 중점을 두고 시민참여형 정책으로 운영하고 있다. 둘째, 도시가족 주말농부 프로그램의 경제적 가치 추정을 위해 조건부가치측정방법(CVM)을 적용하여 지불의사금액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도농교류사업으로서 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도시민의 지불의사는 17,853원으로 나타났으며, 지불의사에

* 본 논문은 서울시 교류협력사업의 전략적 접근방안 연구(배준식·김강현, 2012), 농협-지자체 도농교류사업의 현황과 시사점(김강현, 2015), 농협 도농교류협력사업의 의의와 과제(김강현, 2014)를 수정·발전시켰습니다.

** 한국과학기술원(KAIST) 행정발전연구센터 책임연구위원

논문 접수일: 2020. 03. 11, 심사기간: 2020. 03. 11 ~ 2020. 03. 23, 게재확정일: 2020. 03. 23

미치는 영향은 제시금액, 성별, 소득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서울시 도시가족 주말농부 프로그램은 도시와 농촌이 수평적 관점에서 시민의 지불가치(value for money)를 고려한 정책이며 교류를 통한 실질적인 농업·농촌 발전의 기반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다.

□ 주제어: 도농교류, 도시가족 주말농부, 조건부가치측정법, 지불의사금액

The “City Family Weekend Farmers” program is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urban and rural exchange projects undertaken by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analyzed the participation status and payment value of urban and rural exchanges for Seoul resi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City family weekend farmers project, which is being carried out by the cooperative business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and found out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a win-win cooperative relationship. The main finding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are valuable in terms of civic benefits, not in conventional and formal operations. Second, the CVM (Conditional Value Measurement Method) was used to measure the amount of the willingness to pay for estimating the economic value of the urban family weekend farmer program.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willingness of urban residents to pay for the project as a provincial and rural exchange project was shown to be 17,853 won, and the impact on the willingness to pay was analyzed by the suggested amount, gender and income level. This program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that take into account the participants’ value for money and laying the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farming and farming villages, considering the amount of the Seoul citizens’ willingness to pay and satisfaction with the program.

□ Keywords: Urban-Rural Cooperation Policy, City Family Weekend Farmer, Contingent Valuation Method, Willingness to Pay

Ⅰ. 서론

2007년 12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을 계기로 농촌관광, 그린투어, 녹색관광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던 사업들이 '도농교류'라는 표현으로 일반화 되고 있다(지역재단, 2010). 도농교류협력은 일반적인 교류협력에서 그 대상을 도시와 농촌지역으로 하여 농협과 지자체, 시민단체 등 사회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김강현, 2014).

오늘날 우리는 "도농교류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단순하게 도시와 농촌이 상호관계를 맺는 것이라는 단편적인 수준의 답이 아닌 실질적으로 함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볼 필요가 있다. 교류에 대한 인식이 기존에는 도시가 농촌을 돕는 인도적 차원에서 이루어 졌다면 진정한 의미의 교류는 도시와 농촌간에 교류과정에서 무엇을 받고, 줄 것인지 교류라는 거래행위가 호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민과 농업인이 보완적인 관계로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상호만족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도농교류 정책인 서울시의 도시가족 주말농부 프로그램에 대한 서울시민의 편익과 교류가치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농교류의 대표적 사례인 '도시가족 주말농부' 프로그램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 가치를 계량화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이는 도농교류의 경제적 가치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농촌에 대한 가치인식을 새롭게 조망함으로써 도시와 농촌 간 교류활성화의 근거정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농협이 공동 운영하고 있는 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참여만족도와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적용한 지불의사를 추정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가치측정법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비시장재의 가치측정과 관련한 응답 속에 내포되어 있는 다양한 변수를 반영한 지불의사액을 도출하고자 한다. 불확실성을 반영한 조건부가치측정법의 기존연구(Bishop, 1982; McColluml, 1990; Luis Cesar, 2011; 곽승준·유승훈 , 2001)가 단일 양분선택형 모형을 사용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이중양분선택형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본 연구의 세부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 도농교류의 개념과 경제적 가치측정을 위한 방법론적 기준, 선행연구를 다루고, 3장에서 도농교류의 대표적 사례로서 도시가족 주말농부 프로그램의 현황을 분석한다. 4장에서 동 프로그램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 연구를 요약하며 결론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도시민에게는 상생협력적 도농교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농업인에게는 참여

도시민의 인식을 바탕으로 개선사항을 도출함으로써 농촌 활성화와 경제적 소득창출의 기회로 작용하여 활용하는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Ⅱ. 이론적 고찰

1. 도농교류의 개념과 필요성

도농교류의 정의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도농교류를 이해함에 있어 배준식·김강현(2012)의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도시와 농촌 간에 사람, 재화와 서비스, 정보, 문화 등의 교환을 통한 상호작용'이라고 보는 입장이 일반적이고, 김미영 외(2008)와 같이 도농교류를 경제적인 의미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와 관계 구축의 측면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도농교류에 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상배(1995)가 도농교류를 '도시와 농촌 간 상호방문과 농산물의 거래를 위한 기본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적인 상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까지를 포함한 활동'으로 정의한 이후, 김병률 외(2000)는 '도시와 농촌이 상호 매력요인을 교환함으로써 서로 간의 부족한 부분을 완화하기 위한 동등한 차원의 공생관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송미령(2003)은 '도시와 농촌이 사람, 물품, 서비스, 정보, 문화 등의 측면에서 상호관계를 통해 만족을 얻고자 하는 방식'으로, 임경수(2005)는 도농교류를 낙후된 농촌의 지역개발을 통한 발전과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른 대안적 문화운동으로 이해하였다. 또한, 유정규(2006)는 '상호 대등·호혜의 원칙하에서 단순히 경제적인 의미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뿐만 아니라 도시민과 농촌주민 간의 인간적인 신뢰를 기반으로 인적, 물적, 정보의 교류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양방향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으로 정의했다.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2008)에서는 '도시와 농어촌 간에 이루어지는 인적교류와 상품, 생활체험, 휴양서비스, 정보 또는 문화 등의 교환·거래 및 제공'으로, 배준식·김강현(2012)은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비롯하여 자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지는 재화와 사람의 근본적인 교류' 등 환경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개념 정의를 하고 있다.

최근 도시와 농촌 간 각종 사회·경제적 격차가 확대되고, 고령화 및 인구유출 등의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시민의 실질적 참여와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 증진을 위한 도농교

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배준식·김강현(2012)은 다음과 같이 도농교류의 구체적인 필요성을 제시했다. 먼저, 사회 통합적 이유이다.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 확대로 인해 서울 및 수도권에서 지리적으로 떨어진 지역은 개발과 발전 과정에서 상대적 박탈감과 삶의 질 저하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증진과 사회통합을 위해 도농교류를 통해 완화해야 하는 과제이다. 둘째, 지역균형발전과 경쟁력의 확보이다.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주요 시설과 산업단지를 단순하게 지방에 이양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지역별로 자원배분과 교환이 공정하게 이루어 지도록 각 지자체별로 행정수요를 반영한 교류협력전략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여기에 도농교류가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셋째, 시민체감형 정책의 확산이다. 오늘날 시정운영의 철학은 시민편익이며, 도농교류의 수혜자는 도시와 농촌에 거주하는 시민이다. 지자체간 형식적 교류정책과 선심성 교류협력에서 탈피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정책으로서 교류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협력과 통합의 상생협력의 파트너십 구축의 중심은 결국 정책의 실질적 효용성 증대를 통한 시민편익에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농교류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도농교류의 경제적 가치 측정

오늘날 도농교류가 도시민에게 어떤 편익을 제공하고, 경제적 가치를 함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지방행정 측면에서 제대로 된 정책운영의 제도적 커플링(Institutional coupling)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도농교류가 갖는 경제적 가치 측정은 실용적 관점에서 소비자이자 수용자인 도시민의 지불 의사금액을 추정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도농교류의 대표적 사례로서 도시가족 주말농부 프로그램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도시민이 농촌지역의 팜스테이 마을에 방문하는데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지불용의를 함수화 하여 파악할 수 있다. 특히, 팜스테이 마을과 같은 농업·농촌의 자원은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기반으로 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며 도시민과 농업인이 교류하는 구심점이 된다는 점에서 계량화된 가치를 측정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도시가족 주말농부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팜스테이 마을은 농촌지역의 휴양자원으로서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환경재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의 가치를 측정하고자 하는 방법은 기존의 수요공급에 따른 시장상황에 의존하지 않은 다양한 방법이 고안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환경재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여행비용법(TCM : Travel Cost Method), 헤도닉가격법(HPM : Hedonic Price Method), 조건부가치측정법(CVM : Contingent Valuation Method) 등이 있다(강기래, 2009).

1) 여행비용법

여행비용법은 휴양지나 관광지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유용한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박주헌, 2000). 여행을 통한 가치추정을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의 관점에서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불하여 방문하였는지에 대해 분석하며, 여행을 위해 직접 소요된 금전적인 비용과 투입된 시간비용에 따라 해당 여행지의 방문횟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기본모델로 삼고 있으며, 종합적 여행비용 안에 응답자의 가치평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방법이다. 즉,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여행과 관련된 비용이 증가하면 여행지의 방문횟수가 줄어든다고 가정하고, 여행비용이나 방문횟수와의 관계를 추정하는 것이다.

여행비용법의 기본적인 산식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계량화 하여 도출된 금액을 바탕으로 효용의 가치를 계산할 수 있다.

$$z = z(px+w^{x}tz,\ K+wT)$$

위 식에서, z = 재화량(효용창출)
px = 시장재의 가격(벡터)
w = 임금수준(시간당)
tz = 효용창출을 위한 재화에 필요한 시간
K = 비 근로소득
T = 총 시간

다만, 여행비용법은 여행이라는 행위 자체에 국한하여 가치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가치측정이 곤란하다. 여행비용법에 따르면 여행목적이 단일이 아니고 복수 이상인 경우 각각의 목적에 투입된 시간과 화폐의 기회비용이 적절하게 배분되기 어렵고 자의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즉, 사용가치에 대해서만 측정할 수 있어 비사용가치에 대한 편익 측정이 곤란하고, 여행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시간의 기점을 통일화 하기 어렵고, 방문목적을 단일화하여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여행비용법 단독 분석의 한계로 볼 수 있다.

2) 헤도닉가격법

헤도닉가격법은 시장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환경재에 대해 시장재인 주택이나 노동과 같은 대체시장(Surrogate market)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환경재에 대한 가치를 측정하는 방

법이다(김승우 외, 2003). 즉, 여유로움, 깨끗함 등 무형의 가치가 특정 상품 가격에 내포되었다고 보고 이에 영향을 받은 상품들이 형성하고 있는 가격을 분석한 것이다. 헤도닉 가격법은 이처럼 위의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 결국 해당 상품을 차별화하는 특성들의 잠재가격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즉, 특정 재화의 경우 시장에서 직접 거래되지 않는 다른 요인이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 하에 소비자가 재화 구매시 가격을 지불할 때 간주하는 모든 속성으로 재화를 분해하여 각각의 속성에 대해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환경부, 2001)

헤도닉가격법의 기본적인 산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 = F(A, B, C, D, E)$

여기서 P =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가격
A, B, C, D, E = 가격에 영향을 주는 매개변수

하지만 헤도닉가격법으로는 도농교류의 기대가치와 수요공급의 가격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기에 이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3) 조건부가치측정법

조건부가치측정법은 시장에서 명시적으로 거래되지 않는 재화(비시장 재화)와 관련하여 실제로 해당 시장이 존재하는 것처럼 가상적으로 설정하고 소비자에게 재화의 지불 용의액을 직접 파악하여 그 가치를 구하는 방법이다. 이는 타 방법에 비해 복잡한 중간과정을 거치지 않아 상대적으로 분석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방법은 자연휴양지, 문화재 및 역사적·생태적 가치가 있는 장소와 지역내 환경재의 평가와 환경개선의 효과 분석 등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조건부 가치측정법은 1989년 미국의 원유오염에 대한 손실을 추정하기 위해 적용된 이후 환경, 수송, 위생, 건강, 교육 및 자연·문화자원 등 여러 분야의 연구에 활용되고 있으며,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상품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편익의 범주와 대상 재화를 분석함에 있어 폭넓은 유연성을 갖는다(Hanemann, 1994).

조건부 가치측정법은 여행비용법과 헤도닉 가격법이 가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다(강기래, 2009). 기본적으로 공공재는 시장가격이 존재하기 않으며 해당 재화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을 응답자에 대해 설문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이 논거를 바탕으로 조건부 가치측정법은 가상적인 시장환경을 가정하고, 연구 대상자들이 해당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설문조사 하여 그들의 지불 의사액(Willingness to pay)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도농교류와 같은 유무형적 가치와 환경재적 특성을 함의하고 있는 재화의 가치 추정은 효용함수를 추정하기 위한 단일경제 양분선택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즉, 응답자로 하여금 구간별 참여금액을 제시하여 참여한 도농교류 프로그램의 지불금액을 '예', '아니오'로 응답하게 하고, 응답자는 자신의 경제적 효용가치에 대해 지불의사를 편익의 측정치로 사용할 때 소득보상함수는 다음의 산식과 같은 지불의사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WTP = (P_0,\ Q_0,\ q_0,\ q_1,\ U_0(Y,\ T))$$

일반적으로 CVM 분석에서는 P_0, Q_0, q_0, q_1 등이 모든 개인에게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다음과 같이 단순화 하여 지불의사함수를 추정한다.

$$WTP = U_0(Y,\ T)$$

즉, 위의 세가지 방법중 조건부가치측정법은 간접적 추정방법인 나머지 두 방식과 달리 공공재(비시장재)에 대한 응답자의 최대지불가능금액을 직접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서 해당 재화의 가치를 비교적 정밀하게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 선행연구

도농교류로 인한 경제적 가치는 시장가치와 비시장가치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시장가치는 시장 내에서 재화의 거래가 실제 이루어지는 영역을 의미한다. 즉, 도농교류를 통해 도시에서 방문한 도시민으로부터 유입된 경제가치로 지역경제의 수입증대와 농촌가계의 활성화를 가져오는 가치이다. 다음으로 비시장가치는 재화의 거래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공공재적 특성을 보여준다. 도농교류를 통해 발생하는 무형적 가치로서 지역민의 소속감과 자부심, 도시민의 여가 및 휴식 만족도 등이다.

시장가치적 관점에서 경제적 가치를 분석한 연구는 대체로 지역축제의 사례를 통해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한 연구가 대부분이다(김상호, 2004; 이충기, 2009; 이지석, 2011; 오남현, 2012; 황성수, 2017). 하지만 산업연관분석은 환경의 구조적인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분석하기 어려우며 연구대상의 지리적 범위가 협소한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확히 추산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정욱영, 2012).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시장재화인 환경재의 가치측정에 대한 연구와 적용은 관광과 여

가문화가 확산된 현대에 들어 더욱 다양하고 대상 범위도 확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적용한 분석은 일반 자연 환경에 대한 분석 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의 교통 편의성, 문화, 공원, 역사적 가치 등 거래되지 않는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 거의 모든 재화의 가치측정에 이용되고 있다(강기래, 2009).

특히, 방법론적으로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이론과 방법에 관한 연구(김동일, 2003; 김기화, 2004;, 박주헌, 2008) 연구 이후 이를 적용한 실증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정 정책사업의 경제적 가치측정을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통해 분석한 연구는 대부분 산림자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초기연구는 단순히 국립공원이나 생태공원의 가치평가에 집중했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이명균·임동순(2006)의 마을숲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대한 시도, 강정길·이승곤(2011)의 설악산의 관광자원 가치 측정에 관한 연구, 김덕길 외(2012)의 용담댐 습지의 가치평가 연구, 김태균(2014)의 해양보호구역의 설정에 대한 대중인식도 연구, 이주경(2016)의 전주세계소리축제의 경제적 가치 측정 등 연구대상이 확장되고 있다. 이처럼 자연자산의 개발과 보존, 지역축제 등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가치평가 연구로서 정부와 지자체의 관련 정책결정과 연계하여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자연자산과 특정 자원의 가치측정에 대해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적용한 국내 연구사례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자연, 지역축제 등 특정자산의 가치측정에 관한 연구

연구자	대상	측정방법론	가치측정 결과
윤여창·김성일(1992)	지리산, 설악산, 속리산	조건부가치측정법, 여행비용법(비교)	각각 44,987원, 292,417원, 34,424원
한상열(1995)	팔공산	조건부가치측정법	지불카드 방법:10,630원, 단일경매게임 방법:13,141원
김병준(1998)	북한산	조건부가치측정법	1,532원
전건홍(1998)	민통선	조건부가치측정법	2,842원
이준미 등(1999)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조건부가치측정법, 여행비용법	이용자:615원, 비이용자:1,406원
심재우·구자훈(2006)	학교공원	조건부가치측정법	담장개방:4,634원, 담장미개방:2,372원 입지유형A:4,525원, 입지유형B: 2,994.5원, 입지유형C:2,995.5원
김태희(2009)	산림(서울 소재)	조건부가치측정법	9,965원
강기래(2009)	자연휴양림	조건부가치측정법	연간 1인당 16,000원~25,400원
이우경 외(2012)	경산 단오제	조건부가치측정법	17,876원

연구자	대상	측정방법론	가치측정 결과
김수승 등(2014)	새만금 수목원	조건부가치측정법	6,607원
허주녕·권혁현(2014)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	조건부가치측정법	연간 가구당 17,034원~23,041원
이주경 외(2016)	전주 세계소리축제	조건부가치측정법	18,744원

Ⅲ. 현황

1. 운영개요

2018년 12월을 기준으로 도시가족 주말농부 사업은 전국의 16개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2013년 시범실시 이후 참여한 도시민 수는 연간 4만 명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다(농협중앙회 내부자료). 도농교류 정책 프로그램 실시 6년째인 2019년 현재 서울시의 도시가족 주말농부 사업은 매월 160여명(40가족)의 시민이 근교의 팜스테이 마을을 방문하여 농촌체험과 가족단위 교류프로그램을 경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표 2〉 서울시 도시가족 주말농부 운영방식

구분	내용
모집대상	서울시민 (5세 이상의 어린이가 있는 가족)
모집인원	회당 선착순 최대 80명 (4인 이내 가족 × 20가족)
참가비	1인당 1만원 (정상가격 4만원, 서울시와 농협중앙회에서 참가비 보조)
모집방법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식사랑농사랑 홈페이지
제한요건	연1회 참석

주 : 2019년에는 참가비가 1인당 18,000원으로 인상[1)]
자료: 농협중앙회 내부자료

그러나, 급증하는 신청자 대비 참여 가능한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서울시의 경우 참가 신청 경쟁률이 높고, 근교 팜스테이 마을의 지리적 제약으로 인해 서울시에 인접한 농촌 팜스테이 마을의 추가 확보 등 다양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농협경제연구소, 2015).

1) 한정된 인원으로 인해 매 회차 선착순 신청과 매진이 되어 가격인상에 따른 참가인원 변화가 도출되지 않고, 성인-아동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참가비를 산출·적용되고 있음

도농교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2015년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도농교류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구축하고, 시책수립과 지침을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다.

〈표 3〉 서울시 도시가족 주말농부 프로그램 현황

구분	참여 도시민		참여 마을
	2017년	2018년	
서울시	2,254명(총32회)	2,480명(총35회)	34개 팜스테이 마을
전국	38,652명	45,554명	288개 팜스테이 마을

자료: 농협중앙회 내부자료

2. 운영방식

서울시와 농협에서 공동 운영하고 있는 '도시가족 주말농부 사업'은 2013년 서울시와 농협중앙회가 MOU를 체결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도시가족 주말농부 사업을 도농교류의 유형에 따라 분류하면 분류기준에 따라 교류대상, 교류주체, 교류내용 및 영역, 교류방법 등에 의해 분석할 수 있다(농협경제연구소, 2015)

도시가족 주말농부 프로그램은 교류대상에서 도시민과 지역민(농업인 포함) 상호 교류에 중점을 두는 인적 교류,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 및 교환을 중심으로 하는 물적교류, 관광이나 휴양, 체험, 문화, 환경 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비물적 교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김강현, 2014). 또한, 인적교류는 교류단위가 개인-단체 여부에 따라 나눌 수 있고, 교류방법에 의거하면 관광 휴양 및 체험 등의 단기성 교류와 체류, 요양 등의 장기성 교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류목적에 의해서도 도시민과 농업인 간의 유대강화, 교류를 통한 경제적 교환관계의 추구, 휴식과 체험을 통한 정서적 관계 구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배준식·김강현, 2012).

이러한 도농교류의 유형에 따라 서울시와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가족 주말농부 프로그램을 교류대상, 교류목적, 교류방법으로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의 〈표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4〉 도시가족 주말농부 프로그램의 내용

분류기준	내용
교류대상	서울시민과 농촌지역 주민
교류목적	도시와 농촌 간 상생협력을 통한 도시민·농업인의 상호 실익증진
교류방법	도시민의 농촌마을 방문·체험·농산물 구매

자료: 농협중앙회(2015) 내부자료

3. 참여경로

서울시의 도시가족 주말농부 프로그램은 서울시 홈페이지, NH여행사, 자치구 및 주민센터의 참여 신청서, 농협 식사랑농사랑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민의 주요 참여 경로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이 41.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타인(친구·농협 직원) 소개 23.3%, 서울시 공무원(구청·동사무소) 소개 13.3%. 식사랑농사랑 홈페이지 8.9% 순이었다.

〈표 5〉 서울시 도시가족 주말농부 프로그램의 신청경로

구분	빈도	비율(%)
서울시 홈페이지	145	41.9
농협 홈페이지	29	8.3
식사랑농사랑 홈페이지	31	8.9
서울시 공무원(구청·동사무소 등)의 소개	46	13.3
타인(친구·농협 직원 등)의 소개	81	23.3
기타	15	4.3

자료: 농협중앙회 「도시가족 주말농부 참가자 설문지」(2017년 ~ 2018년)

Ⅳ. 실증분석

1. 조사설계

본 연구에서는 도시와 농촌간의 협력적 도농교류사업으로서 지자체와 농협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가족 주말농부 프로그램을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도시가족 주말농부 프로그램에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농협중앙회에서 2017년 4월 – 2018년 11월까지 이루어진 총 18회차(7~8월 여름휴가 기간에는 월2회 실시)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참여한 성인(부모)을 응답대상으로 한정하였다. 각 회차별로 농협중앙회 파견직원의 입회하에 도시가족 주말농부 체험종료 직후 직접 설문지 배포후 수거방식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수거 설문지 410장 중 불성실한 응답 및 다중표기, 지불의사가 없거나 무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347명의 설문자료를 분석할 수 있었다. 주요 설문내용은 도시가족 주말농부 정책 프로그램의 실태, 참여동기, 문제점과 경제적 가치 추정을 위한 지불의사 등으로 구성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데이터의 분석방법은 SPSS 18.0 for Window를 이용하여 표본에 대한 기술통계와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인구통계학적 특성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여성이 69.74%로 남성보다 높았고, 연령은 30대와 40대가 61.95%로 나타났다. 자녀수는 2명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학력은 대졸이 주를 이루었다.

〈표 6〉 응답자의 기초통계량 특성(n=347)

변수	항목	빈도	비율
성별	남성	105	30.26%
	여성	242	69.74%
자녀수	1명	157	45.24%
	2명	172	49.57%
	3명	17	4.90%
	4명 이상	1	0.29%

변수	항목	빈도	비율
연령	20대	23	6.63%
	30대	98	28.24%
	40대	117	33.71%
	50대	61	17.59%
	60대	48	13.83%
학력	중졸	3	0.86%
	고졸	77	22.19%
	대졸	211	60.81%
	대학원졸	56	16.14%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1	0.29%
	200만원 미만	58	16.71%
	300만원 미만	129	37.18%
	400만원 미만	101	29.11%
	500만원 미만	40	11.52%
	500만원 이상	18	5.19%

주: 설문지는 가족당 대표 1인이 작성한 것임
자료: 농협중앙회 「도시가족 주말농부 참가자 설문지」(2017년 ~ 2018년)를 바탕으로 분석

서울시민이 도시가족 주말농부 프로그램에 참여한 동기를 크게 다섯 가지 측면에서 구조화한 결과 '가족과의 추억'이 5점 만점에 4.5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농촌지역 활성화'(3.21점)를 위한 목적은 가장 낮게 응답되었다. 이는 서울시와 농협의 본래 정책시행 취지와는 달리 서울시민들은 도시가족 주말농부 프로그램을 도시와 농촌간의 상생, 농촌지역 활성화 보다는 가족과의 여가와 여행을 위한 목적에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향후 인식개선과 개선을 위한 세밀한 정책홍보 및 교육이 필요함을 반증한다고 하겠다.

〈표 7〉 서울시 도시가족 주말농부 프로그램의 참여 동기

구분	평균	전체 평균
농산물 구매	3.73	
정서적 치유(힐링)	3.88	
가족과의 추억	4.51	
도시와 농촌간의 상생	3.74	
농촌지역 활성화	3.21	

자료: 농협중앙회 「도시가족 주말농부 참가자 설문지」(2017년 ~ 2018년)를 바탕으로 분석

한편, 동 프로그램의 실태와 관련하여 도시가족 주말농부 사업이 이루어지는 농촌마을이 대부분 서울시를 벗어난 외곽지역에 위치함에 따라 교통편 등의 접근성, 교육장과 화장실, 식당 등 이용시설, 참여 세부프로그램, 이용요금 등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체험 프로그램은 불만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체험 프로그램이 마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대체로 유사[2]하거나 단조롭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었다.

〈표 8〉 서울시 도시가족 주말농부 프로그램의 문제점

구분	만족도			
	불만족	보통	만족	소계
교통편	59	171	117	347
프로그램	133	129	85	347
이용시설	100	165	82	347
이용요금	29	112	206	347
농산물 직거래	30	129	188	347

주 : 설문문항의 매우 불만족, 불만족은 불만족으로, 매우만족과 만족은 만족으로 통합함
자료: 농협중앙회 「도시가족 주말농부 참가자 설문지」(2017년 ~ 2018년)를 바탕으로 분석

다음으로 '도시가족 주말농부' 프로그램에 참여한 서울시민이 평가하는 동 정책의 경제적 지불가치에 대한 분석이다. 경제적 지불가치는 해당 프로그램 체험활동 후 인식하는 지불의 사금액을 통해 추정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도시가족 주말농부 프로그램과 같은 비시장재화의 경제적 가치측정을 위해서는 우선 두 가지 가정을 설정해야 한다. 첫째, 사람들은 비시장재로 구성된 재화와 서비스 패키지(bundle of goods and service)에 대해 일련의 선호체계를 갖는다. 둘째, 사람들은 자신의 선호체계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으며, 위의 재화 패키지를 구성하는 시장재와 비시장재 간에는 상호 대체 가능성이 존재한다(박용치, 2001; 신영철, 2006; 이영범 2008). 이는 시장재의 소비가 감소되더라도 공공재와 같은 비시장재의 소비를 증가시킨다면 동일한 수준의 효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비시장재의 화폐가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으며, 이러한 대체 가능성에 기반한 가치개념은 소비자의 지불용의가 있는 금액(WTP : willingness to pay)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도시가족 주말농부 프로그램의 가치는 참여한 도시민의 선호로부터 도출되며 총 가치는 해당 재화의 선택을 통한 화폐적 가치의 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2) 대부분의 팜스테이 마을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채 트랙터 마차, 농산물 수확체험, 비빔밥 만들기, 제기차기 등을 체험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도시민의 수요와 눈높이를 반영하지 못한 사례로서 서울시와 농협의 체계적인 교육과 컨텐츠 개발이 필요

화폐가치의 합이 도시가족 주말농부 프로그램의 선택에 대한 지불수용의사금액이며 이를 통해 그 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

조건부가치측정법에서 질문방법은 Hanemann(1984)에 의하여 도입된 후 최근 연구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양분선택형 질문(dichotomous choice question)을 활용하였다. 양분선택형 질문법은 연구대상 재화에 대해 응답자에게 특정 금액에서의 지불수용의사 여부를 물음('예/아니오') 으로써 실제 시장의 거래상황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유인 일치적(incentive compatible)인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이중양분선택형 설문형태의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적용하였다. 이 방법에 따르면 제시된 금액에 응답자의 지불 수용의사가 있으면 WTP는 해당 금액보다 크거나 같다고 할 수 있으며, 지불 수용의사가 없다면 제시된 금액보다 작다는 것을 이용해 확률곡선을 구할 수 있는데 이중양분선택형 방법은 이를 두 번 실시하는 방법이다(한상현·김재석, 2013). 즉, 최초 제시금액에 대한 응답 결과에 따라 추가 질문에서 제시금액을 2배로 높이거나 1/2로 낮추어 제시함으로써 응답자의 지불의사 금액을 보다 정교하게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양분선택형 모델을 적용하여 제시금액 A에 대한 응답자의 지불의사 가부에 따라 각각 그보다 높은금액 B를 제시하거나 낮은 금액 C를 제시하였다. 즉, 응답확률을 PROB라 할 때 제시금액 A, B에 대한 지불의사가 있을 확률은 pYY, A는 있지만 B에는 없을 확률은 pNN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로그우도(log-likelihood)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ln VALUE = \sum_{i=1}^{N} \left[\ln PROB^{YY}(A_i, B_i; \theta) + \ln PROB^{YN}(A_i, B_i; \theta) + \ln PROB^{NY}(A_i, B_i; \theta) + \ln PROB^{NN}(A_i, B_i; \theta) \right]$$

도시가족 주말농부 프로그램의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는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주요변수들을 적용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거의 모든 선행연구에 포함된 성별, 연령, 소득(이충기 외, 2010; 김채옥 외, 2010; 허주경 외, 2014; 송윤강 외, 2015; 이주경 외, 2016), 거주지와 학력(이성근 외, 2011; 한상현, 2008; 정찬영, 2014, 이주경 외, 2016)을 포함하였다. 제시금액(이충기 외, 2010; 송운강 외, 2015; 한상현, 2008)과 타 농촌마을 방문경험(한상현, 2008; 이주경 외, 2016) 등을 반영하여 변수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치추정과 관련하여 도시가족 주말농부 프로그램에 참여한 서울시민의 지불의사액을 추정하기 위해 제시금액을 5단계로 나누어 설문조사 하였다. 조사결과 제시금액이 커질수록 지불의사를 나타내는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시가족 주말농부 프로그램의 제시가격별 지불의사는 제시금액이 높을수록 응답자의 지불의사 확률이 낮아지며, 부호도 음(-)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결과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9〉 도시가족 주말농부 프로그램의 지불의사액 분포

처음 제시금액	표본	지불의사액			
		YY	YN	NY	NN
10,000원	115	48	29	27	11
15,000원	105	35	22	19	29
20,000원	74	26	15	14	19
25,000원	34	15	3	5	11
30,000원	19	3	3	4	9
전체	347 (100%)	127 (36.6%)	72 (20.7%)	69 (19.9%)	79 (22.8%)

주: 두 번째 제시금액은 첫번째 제시금액에 대한 응답이 "예"이면 그 2배이며, "아니오"이면 첫 번째 제시금액의절반이다.

일반적으로 편익에 대한 추정은 지불의사가 있는 응답자(참여자)에 대해서만 추정해야 과대추정이 발생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지불의사가 있는 347명에 대해 편익을 추정하였으며 지불의사가 없는 비율은 모집단에서 지불의사금액을 0으로 처리하여 정확한 편익금액을 도출하였다.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기 위한 분석방법으로 이변량프로빗모델을 이용하였고 최우추정법에 의한 Hanemann 모형에 따른 추정결과를 도출하였다. 지불의사액(WTP)은 개별 응답자들이 평가한 자료로 추정되었으며, 대부분의 응답자는 전반적으로 CVM에 의해 구성된 도시가족 주말농부 프로그램의 가상시장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였으며, 평균적으로 유의한 금액을 낼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의 〈표 10〉와 같이 전체모델은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하고 제시금액 계수는 -0.000198로 제시금액이 높아질수록 지불의사금액이 낮아지는 것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도시가족 주말농부 프로그램의 1인당 평균 지불의사액을 추정한 결과 서울시민의 1회당 지불의사 금액은 약 17,853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서울시에서 공개한 1인당 순수 정책 소요비용(팜스테이 마을 사용료+교통비+중식+체험비 등 포함)인 5만원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며, 서울시와 농협의 보조금(약 3만원) 지원후 서울시민 1인당 지불금액인 18,000원에도 다소 못미치는 금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민이 평가한 동 프로그램의 경제적 가치가 산출원가에도 못미치는 수준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불의사결과는 동 도농교류 프로그램이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정책사업이며,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정책자체의 상품성 강화와 함께 가격수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표 10〉 도시가족 주말농부 프로그램의 WTP 추정결과(공변량이 없는 경우)

Variable	Coefficient	p-value
Loglikeihood	-450.32	
Wald statics	59.89	0.000***
Bid	-0.000198	0.000***
WTP Mean	17,853.30	

주: ***는 0.01 수준에서 유의함

3. 지불의사 영향요인

다음으로 '도시가족 주말농부' 프로그램의 지불의사 영향요인은 서울시민의 지불의사 모형의 추정결과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주요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성별, 연령, 학력, 소득수준, 타 팜스테이 마을 방문경험, 만족도) 등을 반영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한 변수는 해당 특정 사업 및 프로그램의 특이성을 반영한 변수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적용한 변수만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가족 주말농부 프로그램의 제시금액에 대한 지불의사를 종속변수로 두고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과 방문동기, 만족도 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다. 비시장 재화의 경제적 가치추정 관련 주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공통적인 6개의 변수 중 3개의 변수인 제시금액(Bid), 성별(Gen), 소득(Inc) 변수가 종속변수인 지불의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시금액은 지불의사에 강한 통계적 유의미성이 나타났고, '남성'은 '여성'보다 지불의사가 높았고(+), 소득은 높을수록 지불의사가 높게(+)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와도 동일한 것으로서 제시금액과 소득이 정의 관계를 보이고, 성별 변수 역시 남성의 지불의사가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남으로서 선행연구(차경욱, 2012; 허주경 외, 2014; 송윤강 외, 2015; 이주경 외, 2016)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표 11〉 지불의사 영향요인(공변량 포함)

Variable	Coefficient	p-value
(Log-likeihood)	-410.78	
Wald statics	185.43	0.000***
Bid	-0.000368	0.000***
Age	0.085	0.561
Gen	0.463	0.037**
Edu	0.371	0.721
Inc	0.170	0.097*
Exp	0.070	0.169
Sat	0.217	0.577
전체 관측치 개수	347개	

주: ***는 0.01 수준에서 유의함

V. 결론

그동안 지자체의 도농교류 정책 연구는 대부분 지역수요에 기반한 정책을 강조하고 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등 공간단위를 대상으로 하고 개별 지자체 간 협력연구 및 사례 연구가 많지 않아 구체적 추진체계나 개별정책의 경제적 가치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편이었다. 특히, 경제적 가치에 대한 추정에서도 특정 자연자원 및 시설에 대한 분석이 주로 이루어졌고 도농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실태와 평가는 부족한 수준이다.

본 연구는 지자체와 농협의 대표적인 협력적 도농교류 협력사업인 '도시가족 주말농부' 프로그램의 만족도와 실태를 시민의 지불의사액에 기초하여 평가하고자 수행되었다. 주요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도시가족 주말농부 프로그램에 참여한 서울시민의 만족도는 대체로 높지만 운영과정에서 개선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특히, 천편일률적인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한 교류 컨텐츠 부족문제는 도농교류가 인도적 차원이 아닌 상호호혜적 관점에서 진행되는데 필수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도농교류를 상호 거래를 통한 소통으로 볼 때, 동등한 수준에서 재화의 교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농교류의 상품성을 갖추는 것이 요구된다. 교류협력이 추구하는 가치는 배준식·김강현(2012)이 언급한 바와 같이 도농 간 격차를 완화함으로써 지역간 균

형발전에 이바지 하는 측면이 크다. 따라서 시민체감형 정책확산이라는 측면에서 교류 프로그램의 질적 성장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도시민이 지불하는 경제적 가치에 걸맞는 도농교류의 체험 및 컨텐츠 관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지불의사액과 관련해서 서울시와 농협의 협력적 도농교류사업인 '도시가족 주말농부' 에 대한 서울시민 1인당 지불의사액(WTP)은 17,853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 사업의 경제적 지불가치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기부방식이나 입장료 방식이 아닌 참가비라는 지불자의 저항력이 다소 높은 방법을 택함으로서 지불의사금액의 과대추정을 방지하고자 하여 시민의 눈높이를 반영한 지불의사금액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동 결과는 도시가족 주말농부 정책 프로그램의 본래 가격이 1인당 5만원에 달하는 반면 서울시민이 평가한 지불가치는 17,853원에 불과하여 서울시와 농협의 보조금(약 3만원)을 제외하고 실제 시민이 부담하는 18,000원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서울시민은 도시가족 주말농부 프로그램의 가치를 5만원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평가했다. 이는 보조금이 투입되지 않는 한 현재의 지불가치 수준에서 볼 때 도시가족 주말농부 프로그램의 가격산정 및 재정 효율화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성인과 아동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18,000원의 참가비를 받는 것은 적정 가격산출 측면에서 많은 이견이 도출되었으며, 가격 차등화를 통한 정책 만족도 증대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서울시와 농협의 대표적인 도농교류 프로그램이 도시가족 주말농부 사업에 참여한 서울시민의 지불의사를 통해 실증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서울시민이 방문한 해당 팜스테이 마을의 특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288개 마을 전체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해당마을의 세부 참여프로그램의 편차, 농가 레스토랑의 운영 및 배식수준, 날씨와 기온 등 자연환경적 특성도 만족도와 지불의사액을 추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가변변수를 반영한 연구설계를 통해 정밀한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가족 주말농부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시민에게 삶의질 향상과 정서적 만족감을, 농촌지역 주민에게는 경제적 활력과 농촌활성화 도모를 위한 가치평가의 방법으로 정책결정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무형의 교류재화에 대한 가치평가와 관련하여 CVM 연구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종 도농교류사업 및 지자체의 정책 프로그램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편익과 미세조정을 위한 관련 연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다만, 아직까지 도농교류로서 도시가족 주말농부 프로그램이 지자체와 농협의 예산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예산낭비 또는 소모성 행사라는 비판도 남아있다. 예산투입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비용편익분석과 관련하여 도시가족 주말농부 프로그램에 대한 편익추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에 대해 쉽게 판단하기란 어려운 문제이다.

도시가족 주말농부 프로그램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아니지만 지자체와 농협의 협력적 교류정책이라는점,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통해 인적·물적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상징성과 효용성을 감안한다면 비시장재로서 공공재적 가치를 함의하고 있음은 당연하다.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의 대표적인 도농교류 정책인 도시가족 주말농부 프로그램의 경제적 가치 추정을 통해 관심을 제고하고 향후 도농상생의 가치를 반영한 정책평가의 사회적 인식 확산과 도농교류 가치를 추정하는 것은 중요하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강기래. (2009).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한 자연휴양림 휴양가치 측정.「한국조경학회지」, 37(5): 42-52

강정길·이승곤. (2011). CVM 기법을 응용한 국립공원 설악산의 관광자원 가치 측정에 관한 연구 : 케이블카 설치 가부에 따른 측정을 중심으로.「관광학연구」, 35(4) : 51-73

곽승준·유승준. (2001). 동강 자연환경 보존의 경제적 편익 분석 :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적용을 중심으로.「경제학 연구」, 49(2) : 163-184

김강현.(2014).「농협의 도농교류협력사업의 의의와 과제 연구」. 농협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2014-7

김덕길·유병국·김재근·신한규·김형수·안경수·장석원. (2012).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한 용담댐 습지의 가치.「한국습지학회」, 14(1) : 147-158

김동일. (2003). 조건부가치측정연구에서의 예-응답.「경제연구」, 17 : 23-34

김미영·김경찬. (2008).「민간단체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연구보고서

김병률·김윤식·김태곤. (2000).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c2000-9」

김병준. (1998).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한 편익의 측정 : 북한산국립공원의 경우.「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상호. (2004). 함평나비축제의 지역경제파급효과.「한국지역개발학회지」, 16(3) : 101-116

김승우·김홍균·유상희·이호생·임종수·정태용·한택환·홍종호. (2008).「환경경제학 : 이론과 실제」, 박영사

김채옥·송운강. (2010). CVM을 통한 하이서울페스티벌의 가치평가.「아태비지니스연구」, 1(1) : 23-40

김태희. (2009).「산림자원의 이용가치 측정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농협경제연구소. (2015).「식사랑농사랑 운동의 발전방안 연구」. 농협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박용치. (2001). 환경자원의 이용가치 평가.「한국조사연구」 2(2) : 83-107

박주헌. (2008). 조건부가치측정의 응답매커니즘 비교.「자원환경연구」, 17(2) : 327-347

배준식·김강현. (2012).「서울시 교류협력사업의 전략적 접근방안 연구」. 서울연구원 연구보고서

배중남. (2009). 도농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강원발전연구원 연구보고서 09-23」

송미령. (2003). 도농교류촉진을 위한 농촌어메니티 형성방안.「새국토연구협의회 공동세미나 발표자료집」

송운강 . (2015). 가상가치평가법을 이용한 지역축제의 경제가치추정 : 화천 산천어축제를 대상으로.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29(3) : 41-50
신영철. (2005). 생태자연도 1등급지의 경제적 가치 추정.「자원·환경경제연구」, 14(1) : 25-82
오남현. (2012). 환경자원을 활용한 지역축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 예천군 곤충바이오 엑스포 축제를 사례로.「한국비교정부학보」, 16(3) : 363-382
유정규. (2006). 도농상생을 위한 도농교류의 의미와 활성화 전략.「지역재단 창립 2주년 기념 심포지엄 발표자료집」
윤여창·김성일. (1992). 산림자원의 휴양가치 산출을 위한 경제적 평가방법론 비교연구.「한국환경경제학회」, 1(1) : 155-184
이명균·임동순. (2006).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한 마을숲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대한 시도.「한국학논집」, 33 : 153-194
이영범. (2008). 공공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측정에 관한 연구.「정책분석평가학회보」18(3) : 171-193
이상배. (1995).「도시와 농촌의 교류 :어떻게 할것인가」. 나남출판사
이우경·이성근. (2012). 경산 자인단오제의 경제적 가치 평가에 관한 연구.「한국균형발전연구」, 3(1) : 1-22
이주경·김세진. (2016). 조건부가치측정법에 의한 전주세계소리축제의 경제적 가치 추정연구.「예술경영연구」, 38 : 133-153
이지석. (2011).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한국콘텐츠학회」, 11(10) : 371-378
이충기·김태균. (2010). CVM을 이용한 보령머드축제 생태자원의 경제가치 평가 : 가설적 편의의 최소화 방법을 중심으로.「관광연구」, 25(4) : 129-144
임경수. (2005).「도농교류의 현황과 과제」. 농정연구센터 계간농정연구
전건홍. (1998).「민통선, 개발보다 보전가치가 더 크다」. 환경운동연합, 함께사는길
정욱영. (2012). 2011 강릉단오축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관광레저연구」, 24 : 341~359
정찬영·이훈. (2014). 축제의 경제적 지속성을 위한 축제 입장료 지불가치 추정 : 가상적 가치추정방법(CVM)을 이용하여.「관광연구논총」, 26(2) : 153-174
지역재단. (2010).「도농교류의 현황과 과제」. 지역재단 지역리더, 15
채경진·조일형. (2019).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적용한 지역축제의 입장료 지불가치 측정 : 부천시 봄꽃축제를 중심으로.「국정관리연구」, 14(1) : 1-22
한상열. (1995).「자연공원의 휴양가치평가를 위한 contingent valuation의 이용 : 방법에 따른 휴양가치평가의 비교 - 팔공산 도립공원의 예」. 한국임학회 정기총회 학술발표회 : 107-108
한상현. (2008). 지역문화축제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 부산국제영화제를 중심으로.「관광

연구」, 23(1) : 231-251
허주녕·권혁현. (2014). 도시농업 참여 실태와 다원적기능 가치평가.「서울도시연구」, 15(4) : 53-64
환경부. (2001).「자연자산의 경제적 가치측정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황성수. (2017). 궁중문화축전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관한 실증연구 : 산업연관분석을 중심으로.「예술경영연구」, 42 : 249-277
Bishop, R. C. (1982). Option Value ; an Exposition and Extension. Land Economics, 58 : 1-15
Hanemann, M. (1984). Welfare Evaluation in Contingent Valuation Experiments with Discrete Response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 67(3) : 332-341
McConnell, K. E. (1990). Models for Referendum Data : The Structure of Discrete Choice Models for Contingent Valuation. 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18 : 19-34
Thomas, Steven. (2000). Detroit Could Collect Savings from Privatized Garbage Pickup, *Michigan Privatization Report,* Mackinac Center for Public Policy.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8789호)

김 강 현: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2012)하고, 서울연구원과 농협경제연구소를 거쳐 현재 한국과학기술원(KAIST) 행정발전연구센터 책임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4차 산업혁명, 정책분석, 지방자치, 행정조직 등이다. 최근 논문 및 저서로는 "아프리카 빈곤국가의 에너지 선택결정요인 연구(2016)",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충격(2017)", "농업의 한국형 6차 산업화 모델구축 연구(2018)", "킹던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한 협동조합기본법 제도화과정 연구(2020) 등이 있다.